

사회

잇따르는 청소년 자살 막을 길 없나

광주·전남 보름새 3건... 학업·이성교제·신변 비관 등

신변을 비관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청소년기 부모나 교사에게 털어놓기 힘든 '말 못할 고민'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6시25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아파트에서 C여고 3년 이모(19)양이 12층에서 투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리스 등 구구조장비를 설치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기립성 저

혈압증(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질병)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양은 이전에 2~3차례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한 저수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모(1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이군의 노트에는 지난해 7월 이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김모(18)군이 목을 매 숨졌다. 김군의 누나

(20)는 경찰에서 "동생이 지난해 인문계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고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잠재적 우울증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주지역 청소년 위기사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2.6%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접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6%였으며, 부모 없이 조손가정에서 자란 학생 중 절반

가량(42.9%)이 자살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자가진단'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사례를 문제로 꼽고 있다. 누군가 옆에서 고통을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줬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기전 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업이나 가정 형편, 이성교제, 열등감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사례 관리와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김경민기자 bigkim@

곡성군수 비서실장 영장 청구

관급자재 납품관련 업체서 수천만원 받아

60억대 체육공원 수사 확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8일 곡성군청 군수 비서실장 안모(43)씨에 대해 제3차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관급자재를 곡성군에 납품하도록 선정해준 것에 따른 인사 명목으로 업체 1곳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고 다른 업체 1곳으로부터는 직접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께 곡성군청 군수 비서실, 회계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분체와 회계 관련 서류 10여 권을 압수하는 한편 비서실장 안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는 곡성군 옥과면에 조성중인 총사업비 60억원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장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 측근인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허남석 군수에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 군수는 지난 2일부터 우호교류차원에서 미국 하와이에 출장을 갔다 8일 귀국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제3자는 허 군수가 아닌 안씨가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왜 이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진행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T 휴대전화 불통
광주, 전남·북 불편

8일 오후 3시40분께부터 1시간가량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KT의 휴대전화 불통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통신서비스 장애는 북광주 교환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광주 일부와 전남 순천·목포·나주, 전북 지역에서 통화가 안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되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총인비리 2차 공판, 연루자 24명 한자리에

檢 “심사위원 1명 1억 받았다”

“일부는 업체로부터 지속적 향응·접대도”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불구속 기소된 24명이 지난 6일 오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출두했다. 방청석이 50여 개에 불과한 소법정에 피고인 24명의 가족, 동료 등 150여 명이 몰려들면서 법정 안은 발디딜 틈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서 심사위원 중 1명은 뇌물 액수가 1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는 대립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뇌물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 15명과 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 및 광주시 공무원 9명이 출석했다.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목표대 이모 교수와 전남대 박모 교수 등은 일부 뇌물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에서 금호산업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서기관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지난 2010년 말부터 업체 관계자와 공짜 골프를 치고 직원들의 회사차에 업체 관계자를 불러 계산하게 하는 등 모두 360여 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추가됐다. 검찰은 또 코오롱글로벌 서모 본부장이 광주시 고교 사무관에게 지난해 3월 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 전 1000만원, 이후 4월 심사위원 선정 후 9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사무관은 9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공방을 예고했다. 고 사무관은 시공사 선정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아닌 대립측에 반점을 줬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이주민 노동자 부활절 미사

부활절인 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원동성당에서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활절 미사가 열렸다. 이날 미사는 이주민 노동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베트남어, 동티모어 3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미사 후에는 작은 음악회, 음식 나눔행사도 펼쳐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무원이 공익요원 복무기록 변조

북구청장 등 2명 입건

결근한 구청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한 것처럼 기록을 꾸민 담당 공무원과 이를 결재한 구청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공익요원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광주시 북구청 총무과(당시) 공무원 정모(44)씨와 결재권자인 송광운(58) 북구청장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공익요원 김

모(25)씨 부모의 부탁을 받고 무단결근한 김씨의 일일복무상황부 등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근한 것처럼 기록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정장은 이 허위문서에 결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5월 부터 근무를 시작한 김씨가 지난해 9월까지 단 한차례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만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허위 고발장을 작성해 광주북부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가 공익근무 기간 중

음란 메시지 보낸 대학생 쇠고랑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20대 여성에게 장난삼아 음란 메시지를 보낸 20대 대학생이 경찰서형.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양모(24)씨는 지난해 31일 오후 5시37분부터 같은날 오후 7시27분까지 약 1시간50여분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음란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것.

○양씨는 경찰에서 “우연히 등록된 번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사진으로 올라오자 내 신분을 모를 줄 알고 음란성 글을 보냈다”며 뒤늦게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860-2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질병 환자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실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204-종-4738호